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

조 선 명 · 고 애 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the comparison of age difference in female adolescents-

Sun Myoung Cho · Ae Ran Koh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2001. 2. 20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based on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the covariance structure model was designed, connecting sociocultural attitude, multifaceted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 under sociocultural influence.

The practic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s,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s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and to examine the age difference in the female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were as follows: 1)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had a negative effect directly on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s, and showed the highest value in the group of high school girls 2)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had a positive influence directly on the cognitive/ 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s, and high school girls' model showed the highest value significantly as well 3) High school girls' model showed the highest value significantly in the effect of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s on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s. However, college group's model didn't show significant value 4) Middle school girls' model showed higher value positively than the other groups in the effect of the cognitive/behavioral aspect of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and the high school girls' model showed higher value negatively in the effect of the affective aspect of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Key words: sociocultural attitude, body image, clothing benefits sought, female adolescents;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이미지, 의복추구혜택, 청소년기 여학생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이 젊고, 날씬하며 서구화된 신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실이다. 점점 날씬해져가는 수퍼 모델들과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실증적인 직접적 증거가 되고 있고, 또한 패션 잡지에 보여지는 마르고 서구화된 모델들과 점점 증가하는 다이어트 관련 기사들이 간접적 증거가 되고 있다(한국일보, 1999). 한편, 이상적인 외모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좋은 신체적 외모에 행복과 성공이 양식화된 이미지로 융합되어 마른 신체의 문화적 이상이 강화되고 있다(Featherstone, 1991; 성영신, 1997). 이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Heinberg 등, 1995), 특히 급속한 신체적 변화를 겪고,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소년들보다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에 더욱 불만족 하는데, 날씬하고 매력적인 사회적 이상은 신체 불만족을 더욱 강화시켜,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신체불만족은 현시대의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기 여학생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에 따라 의복을 통해 신체모습이나 기분을 변화, 향상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연령에 따라 신체 발달 정도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이 입시로 인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따라 학교 생활 패턴 및 환경도 다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이상의 수용 정도와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태도 및 의복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징에 관심을 갖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상적인 사회 기준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와 신체이미지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이 유용한 이론적 토대로 제시되고 있다(Thompson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기 여학생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인지적/행동적 차원과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규명하고, 연령 집단별로 그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사회·문화적 환경인 매스미디어의 풍요 속에서 반응하는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태도 및 의복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신체적 자아와 의복행동을 갖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적 외모와 사회·문화적 이상

역사적으로 미(美, beauty)의 이미지, 즉 신체모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이 미술, 문학 등의 예술영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파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보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한편 매스미디어에 의해 표현되는 이상화된 신체 모습은 전문적인 신체관리와 메이크업, 그리고 발달된 사진 기술과 편집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장된 모습이며, 아주 날씬하고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부유하며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다른 어려운 일도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Featherstone, 1991). 이에 사람들은 그것을 조장되고 꾸며진 모습이 아닌 현실과 가까운 실제의 모습으로 보게 되고, 이상 실현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Heinberg, 1996; Mazur, 1986).

Thompson 등(1999)에 의하면, 특히 여성에 있어서 극도로 마른 몸매가 TV나 잡지에 의해 사회적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10대 소녀들의 83%가 일주일에 약 4.3시간 패션잡지를 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Levine 등, 1996), 이러한 현실은 이상적인 신체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이끌어내어 자신들의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1990년대 여성 잡지를 분석한 김희정(1995)의 연구에 의하면, 화장품 광고에 출현한 86%의 여성은 모두 마른 신체를 가진 모

델이고 육체적 매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으로 대부분 잡지나 TV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중앙일보, 1999. 7. 1.; 중앙일보, 1999. 3. 21.; 한겨레 신문, 1997. 9. 10.), 청소년의 절반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조사되었으며, 여학생의 선망하는 외모에 관한 조사에서 48.5%가 연예인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학생은 많은 시간을 대중 매체에 접하고 있으며 보통 사람보다 마른 신체를 가진 연예인을 이상적인 외모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겨레신문, 1997. 12. 9.; 심정은, 1997).

2. 신체이미지와 의복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우리의 신체적 자아, 즉 우리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서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개념적 발전과 평가는 섭식장애와 관련되어 정립되어졌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사회심리학으로의 영역 확산과 함께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Cash 등, 1990; Thompson, 1990).

신체이미지는 신체크기, 체중, 그리고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들의 생김새와 의복과 화장 같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Thompson(1990)은 신체이미지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지각적인 부분으로 이는 신체이미지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정도를 말한다. 둘째, 주관적인 부분으로 만족, 관심, 인식, 열망, 불안 등과 같은 태도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또한 주관적인 부분은 감정적,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집합체를 이룬다(Stormer 등, 1996; Thompson 등, 1990). 셋째, 행동적인 부분으로 의복이나 화장, 체중조절행동, 보디빌딩,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 변형 경험과 함께 섭식행동과 같은 회피 행동들이 포함된다. 한편, Cash(1990)가 제시한 신체이미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이미지는 다차원적(multifaceted)인

데, 그 개념구조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태도적인 부분은 감정적, 인지적/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체이미지 변화 또한 감정적인 신체 변화와 자기 수용적이고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의 신체이미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신체이미지는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여성이 좀더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민감하다. 셋째, 신체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매력적인 광고 모델들이 신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신체를 꾸며주는 의복이나 보석, 화장, 향수 등을 통해 자신의 외모 변화 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려 한다. 넷째, 신체이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불만족스런 신체 부분이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 시키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사회적인 자기확신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이미지는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그 특성으로 볼 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고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상징적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왔다. 의복과 신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의복의 선택동기나 의복만족도, 의복태도와 행동은 신체만족도, 그리고 신체에 대한 기본과 감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LaBat과 DeLong(1990)은 여성 소비자의 신체 만족도가 기성복의 맞춤새 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당시의 유행 스타일과 관련된 하체 부위의 신체 만족도와 맞춤새 만족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다. 의복은 기분이나 느낌 등의 감정적 신체이미지와도 관련되는데, Kwon & Parham(1994)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뚱뚱하다고 느낄 때와 날씬하다고 느낄 때의 신체에 대한 감정 상태에 따라 뚱뚱하다고 느낄 때는 편안한 의복 기능을 추구하고, 날씬하다고 느낄 때는 패션의 기능을 추구는 등 의복을 통한 체태와 기능 추구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발

견했다. 한편 황진숙(1998a)은 신체이미지를 신체 만족도(body cathexis)의 개념으로 측정하여,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만족도와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중요성 중 어느 것이 의복추구혜택에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중요성이 의복혜택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1998b)에서도 의복태도와 유행혁신성에는 신체 만족도보다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중요성이 더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신체 만족보다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의복 선택과 신체 관련 의복 혜택을 추구하는 행동적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의복태도와 의복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Festinger(1954)에 의하여 제기되어 현재에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사회 비교 이론은 사람들이 타자와의 비교에 근거하여 어떻게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선택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Thompson 등(1999)과 Lakoff 등(1994)에 의하면, 신체적 매력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날씬해져 가는 사회적 이상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 촉진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회 비교 결과, 10대 소녀를 중심으로 한 여성에게 좀더 자기 외모를 의식하게 하고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 불만족을 초래할 것이라 하였다. 조근영(1997)은 개인은 자아범주에서 사회 비교에 의한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감정적 결과는 주로 비교 기준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지는데, 비교기준과 지각된 자기와의 차이가 클수록, 즉 부정적인 모순이 생길 경우에 불만족의 감정이 생기며, 그 차이가 커질 때는 실망, 질투, 부러움, 자기비하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쉽고(Oliver, 1980), 특히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의 경우에는 만족, 불만족의 감정이 더 커진다(Higgins, 1987). 사회 비교의 인지적 결과는 사회 비교를 통해 자기 인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차원에 더욱 집중하여 의식

하게 되고, 이것은 정보 처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개인이 판단하는 이상적 자아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불편한 감정의 종류와 인지적 구조의 방향은 달라진다(Richins, 1991). 한편, 사회 비교 결과 생긴 만족 혹은 불만족의 자기 감정과 자신에 대한 인지는 이를 유지, 혹은 향상하기 위한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조근영,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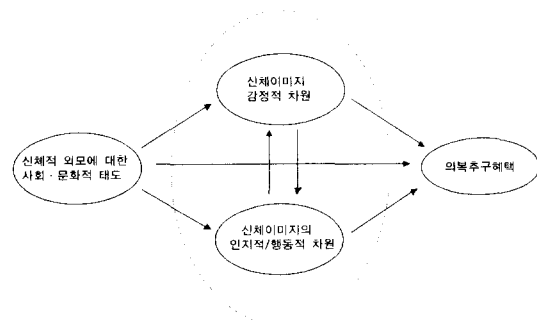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주관적인 상황이나 비교 기준과의 차이에 따라 감정, 인지, 행동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회 비교 이론의 내용은 다차원적인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개념 구조와 대응되며, 의복을 통해 구체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행동적 결과와 체계적 관계를 이룬다.

III. 연구모형(Model)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였고, 신체이미지는 좀더 세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신체이미지를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분리함으로써 의복추구혜택으로 이어지는 사회·문화적 영향의 효과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문제 1.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 집단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의복추구혜택 관계 내에서 신체이미지 각 차



[그림 1] 신체적 외모와 의복에 관한 연구 모형

원의 상호 영향 관계 여부와 연령 집단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신체이미지의 양 차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용어 정의와 측정 도구

1)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며, Heinberg등(1995)이 개발한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 SATAQ)을 이용하였고, 2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한다. 첫째는, '내면화(internalization: SATAQ-I)'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며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 8문항이다. 둘째는, '인식(awareness: SATAQ-A)'으로,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 6문항이다.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모형의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신체이미지에 관한 측정도구는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 문항들(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 MBSRQ)'이라는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 목록에서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하위 척도들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affective aspect)

신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평가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의 측정도구로 알려져 있는 MBSRQ의 '외모 평가(appearance evaluation-AE)'와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BASS)'의 두 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모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로,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뜻하

며, 얼굴, 머리, 피부, 하체, 허리/배, 상체, 몸무게, 키, 전체적 외모의 각각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2)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cognitive/behavioral aspect)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심, 중요성을 의미한다. MBSRQ의 '외모지향성(appearance orientation-AO)' 한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얼마나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열중하며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신체적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 시키는데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의복추구혜택

본 연구에서는 '의복추구혜택'을 신체적 외모와 관련되어 의복을 통해 기대하는 혜택으로 한정하였고, 선행연구들(Kwon 등, 1999; 황진숙, 1998a; Shim 등, 1994)로부터 불만족스런 신체 부분의 보완, 이상적인 신체모습으로의 향상, 신체적 자아나 패션 이미지 표현, 여성스러움의 강조, 기분 향상 등의 내용에 관한 19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전기·중기·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9년 10월 12일~19일에 설문지 총 582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556부(중학생 198부, 고등학생 209부, 대학생 149부)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절차

LISREL 8.12 와 SPSS 8.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석 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측정도구의 구성 및 평가 단계로, 1)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문항들의 하위개념을 도출하여 의복추구혜택의 측정변수로 구성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rotation, mineigen criteria)을 실시하였다.

2)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문항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Cronbach' α 을 통해 각 척도 내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모형 검증 단계로, 검증된 변수들을 모형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로 모형에 투입한 후, 연령 집단별로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공변량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에 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구성 및 평가

(1) 의복추구혜택의 요인구조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총 설명력은 65.79%였다. 한편 두 요인에 걸쳐 높게 적재되는 3문항과 부하량이 낮은 2문항은 제외되었다. 의복추구혜택의 첫 번째 하위개념인 요인 1에 포함된 문항은 자신을 표현하고 개인적 특징을 표현하려는 내용들로, '개성/자기 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총 4문항이고 설명력은 36.08%이었다. 요인 2는 의복을 통해 기분이나 감정을 향상시키려는 내용들로 '기분 향상'이라 명명하였으며, 총 3문항으로 설명력은 13.84%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의복을 통해 지각된 신체의 불만 부분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신체 모습에 도달하려는 문항들로 '신체 모습 향상'이라 명명하였고, 총 4문항으로 8.97%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4는 의복을 통해 이성의 관심을 끌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문항들로 '이성의 관심 유도'라고 명명하였다. 총 3문항으로 6.90%의 설명력을 보였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본 연구에 사용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ATAQ)'는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고, '내면화(SATAQ-I)'와 '인식(SATAQ-A)'의 2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출처와 마찬가지로 내면화와 인식으로 나뉘는 구조를 나타내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본 척도의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설명력은 56.62%였다. 한편 내면화의 8문항 중 2문항은 낮게 적재되었고, 인식의 6문항 중 2문항은 두 요인에 걸쳐 높게 적재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며, 따라서 각각 6문항, 4문항이 모형검증에 쓰여졌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측정도구 각각에 대한 일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때, χ^2 의 경우 모두 값이 크고, 유의도가 작게 나타났으나, 이는 간명한 모델을 큰 자료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Joreskog 등, 1993; Schumacker 등, 1996). 한편 다른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90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고, 또한 문항들과 해당 구성개념을 연결하는 λ 값들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문항들이 한 개념으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각 구성 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한편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의 측정변수 중 신체 만족도 척도는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들의 총합과 평균값으로

<표 1> 측정변수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측정변수	χ^2	p	df	GFI	AGFI	NFI	RMR	Cronbach' α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37.17	.00	9	.91	.88	.90	.05	.86
	인식	15.16	.00	2	.99	.94	.97	.03	.71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외모평가	17.50	.00	5	.97	.90	.95	.03	.77
	신체만족도72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	외모지향성	24.22	.01	26	.98	.97	.98	.02	.89
의복추구혜택	개성/자기 표현	9.08	.01	2	.99	.97	.98	.02	.74
	기분 향상	—	—	—	—	—	—	—	.77
	신체 모습 향상	19.91	.00	2	.97	.94	.96	.03	.82
	이성의 관심유도	—	—	—	—	—	—	—	.74

〈표 2〉 측정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문항	추정치(λ)	SE	t값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다른 여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마르고 싶어진다.	.86	.03	24.53***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88	.03	25.25***
		나는 패션잡지를 보면서 모델들과 나를 비교하곤 한다.	.71	.03	18.36***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곤 한다.	.68	.03	17.39***
		나는 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다. (R)	.59	.04	11.41***
	인식	옷은 다른 모델들이 입어야 더 예뻐보인다.	.57	.04	14.20***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80	.03	17.46***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82	.03	17.92***
		우리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들도 보기 괜찮다고 여겨진다. (R)	.57	.04	8.98***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다. (R)	.55	.04	9.17***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	외모평가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	.78	.04	19.60***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73	.04	17.95***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72	.04	17.70***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61	.04	14.21***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45	.04	10.00***
신체 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	외모 저항성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77	.03	20.49***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73	.03	18.96***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R)	.66	.04	16.23***
		나는 언제나 멋져 보여야 한다.	.68	.03	17.37***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71	.03	18.05***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72	.03	18.21***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하지 않는다. (R)	.67	.03	16.64***
		나는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65	.04	13.69***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57	.04	13.69***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쪼개봐 걱정한다.	.53	.04	12.19***
의복 추구혜택	개성/자기 표현	나는 특이한 옷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73	.04	16.47***
		나는 내 개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옷을 입으려고 신경쓴다.	.72	.04	16.23***
		나는 주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옷을 고른다.	.69	.04	12.60***
	기분 향상	내가 입는 옷은 내 자존심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55	.04	12.14***
		내 옷차림은 언제나 내 기분에 영향을 준다.	.80	.04	14.41***
		옷을 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72	.04	13.50***
	신체 모습 향상	나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또는 일부러 옷을 갈아입는다.	.45	.04	9.48***
		나는 옷으로 신체적 불만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90	.03	23.61***
		나는 내 신체의 불만 부분을 가려주는 옷을 고른다.	.88	.03	21.96***
		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69	.04	11.79***
	이성의 관심 유도	나는 내 몸매가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	.59	.04	11.80***
		나는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옷을 입는다.	.90	.04	18.56***
		이성의 관심을 끄는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다.	.71	.04	15.22***
		나는 나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옷을 입는다.	.53	.04	11.82***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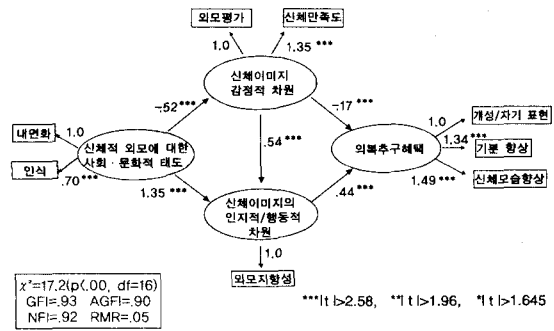
사용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기본 향상과 이성의 관심 유도는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df=0$ 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산출되지 않았으나, 한 요인에 필요한 변수의 수는 3개 이상이라는 준거에는 합당하며(Guilford, 1954; 조현철, 1999), 따라서 각 변수들을 한 개념으로 연결하는 추정치들(λ)은 산출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표 1>과 같이 모두 0.70이상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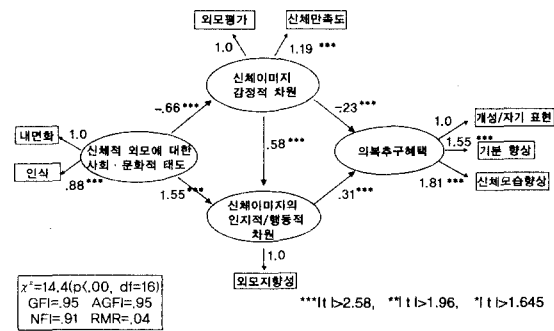
초기 설계한 연구모형을 추정, 검증한 결과, 충분한 적합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와 t값의 평가를 통해 다시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의복추구혜택으로 가는 직접경로(γ_{11})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서 감정적 차원으로의 경로(β_{32})를 고정시키고, 의복혜택추구의 측정변수인 이성의 관심 유도를 제거한 결과, 최종 모형이 성립되었다. 청소년 전기, 중기, 후기에 준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집단별 모형 검증 결과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과 같으며,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들과 경로 계수 등이 제시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χ^2 는 유의도를 고려할 때 비교적 좋지 않은 값을 나타냈으나, 간명한 모형을 표본수가 큰 자료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한편 GFI, AGFI, NFI가 모두 0.90이상이고, RMR 값도 비교적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경로 계수들(γ , β)의 값과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간의 계수들(λ)이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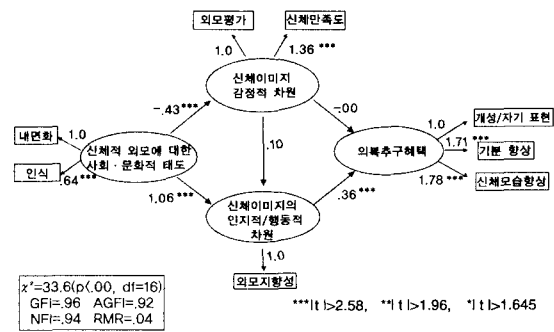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



[그림 2] 중학생 집단의 모형검증 결과



[그림 3] 고등학생 집단의 모형검증 결과



[그림 4] 대학생 집단의 모형검증 결과

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미치는 직접 경로의 값은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집단 각각 -0.52, -0.66, -0.43($p<.00$)을 나타내었다. 우선 세 집단 모두에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직접적인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Thompson 등(1995)과 Cusumano 등(1997)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들과 일치함을

나타냈고, 여러 저널들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기 여학생 및 여성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집단별로 차이점을 살펴보면, 중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이 더 큰 음의 값을 나타내 고등학교시기에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경로의 값은 연령 집단별로 각각 1.35, 1.55, 1.06($p < .00$)을 나타내었다. 세 집단 모두에서 매우 높은 양의 값을 나타냈고, 또한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즉,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와 같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신체적 외모에 대해 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지적/행동적 성향을 매우 높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의 각 차원을 연결하는 인과계수들을 비교해볼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감정이나 평가의 차원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열중하는 성향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신체이미지 각 차원의 상호 영향 관계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령 집단별 차이

모형 추정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인과적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비교 과정과 함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형성되면, 자신의 신체 평가와 감정의 상태는 신체에 대한 인지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행동결과인 의복추구혜택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화

적 영향력 하에서 신체이미지의 내부에서의 방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그 방향은 감정적 차원에서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의 값은 중학교·고등학교 집단에서 각각 .54, .58($p < .00$)의 값을 나타내었다. 값을 비교해볼 때, 청소년 중기인 고등학교시기에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에 따른 감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중요성과 열중, 의식에 좀더 높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 집단에서 대부분의 추정치가 신체이미지를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여학생은 고등학교시기에 신체에 대한 개념이 최고를 이룬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생 집단 모형에서는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과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두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 후기에 이룰수록 사회 비교 결과에 따른 신체에 대한 감정이 신체에 대한 인지적/행동적 성향과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서 의복추구혜택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도 비교적 큰 값들을 나타내었다.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큰 값(.44, $p < .00$)을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작은 값(.31, $p < .00$)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큰 절대치(-.23, $p < .00$)를 나타내었다.

최종 내생변수인 의복추구혜택의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모형을 구성하는 예측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신체 모습 향상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 추구 혜택 개념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은 중학교와 대학교 집단의 모형에서는 외모평가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나, 고등학교 집단의 모형에서는 신체 만족도와 외모평가의 값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정도는 고등학교시기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더욱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사회 비교 이론을 기초로 하였고, 신체적 외모와 의복에 관한 사회 현상적 접근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함으로써,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 각 차원에서의 결과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큰 음의 값을 나타냈다. 둘째,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세 집단 모두에서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매우 큰 양을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교 집단 모형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셋째,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큰 음의 값을 보였고, 대학생 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집단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냈고,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큰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집단 모형의 값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 청소년 중기에 준하는 고등학교 시기에 외모와 관련되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체에 대한 개념이 최고를 이루며, 신체에 대한 감정상태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적인 외모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스미디어, 즉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서,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 의복을 연결짓는 인과 관계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이에 의미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여학생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적 비교를 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미디어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이

렇게 형성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가치는 신체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온다. 즉, 자신의 신체에 중요성을 부가하고 열중하게 되며, 또한 구체적으로 의복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이루려는 방향과 기대가 설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실제적 신체모습에 대해 높게 불만족하고, 이상적인 사회 기준과는 너무 다르며, 의복에 의해서도 이상적인 신체모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적 중요성과 의식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의복을 통해 이상적 신체 모습을 이루려는 행동적 성향은 어느 정도 감소된다. 즉, 사회·문화적 태도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감정은 신체이미지의 인지적/행동적 차원의 방향과 의복추구혜택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Duval 등(1992)이 제시한 내용인, 이상 기준에 대응하여 결과가 긍정적이라 기대되면 비교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시도하고,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던지, 비교범주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지적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감소를 해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기 여학생의 부적절한 다이어트나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같은 섭식장애 행동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입시 등의 교육 현황과 갑작스런 체중 증가 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와 사회적 비교를 하며 그 결과 심각한 신체 불만족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외모를 아끼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행동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을 막을 수는 없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자극(Stimulus)으로서의 매스미디어 환경과 섭식행동 및 다이어트와 같은 행동(Response)사이의 유기체(Organism)인,

매스미디어 수용자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이에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즉 '신체를 위한 자아'가 아닌 '자아를 위한 신체'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형의 설계와 연구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모형의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변수의 수는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이상적인데 단일, 혹은 2개의 측정변수로 측정하는 불완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오차변량을 계산해서 조치를 취해 비합리적인 준거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확인된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수의 측정변수를 확보하여 모형을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대상을 서울의 중·고·대학생 556명을 대상으로 했고, 일시적인 기간에 조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희정(1995), 잡지 광고의 여성 역할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철(1997, 9. 10.). 고교생 방학 여가시간 때 자거나 TV시청이 50%. 한겨레신문.
- 박정호(1999, 7. 1.). 여름 TV 10대들이 최대고객. 중앙일보.
- 성영신(1997), 소비와 광고 속의 신체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17, 31-62.
- 심정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대영(1999, 3. 21.). 청소년 TV보는게 낙. 중앙일보.
- 조근영(1997), 광고모델의 신체적 매력의 수용자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1999), LISREL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 도서출판 석정.
- 한겨레신문(1997, 12. 9.). 청소년 절반이 '연예인 되고 싶다'.
- 한국일보(1999). 미스코리아 40년사.
<http://hk.co.kr/event/misskorea/1999/index.htm>.
- 황진숙(1998a).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 황진숙(1998b). 미국 여대생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 유행혁신성, 쇼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8), 1061-1069.
- Cash, T. F.(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Thompson, J. K.), Pergamon Press.
- Cash, T.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s -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usumano, D. L., Thompson, J. K.(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1.
- Duval, T. S., Duval, V. H. and Mulilis, J. P. (1992). Effects of self-focus,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standard, and outcome expectancy favorability on the tendency to match self to standard or to withdra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40-348.
- Featherstone, M.(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Guilford, J. P.(1954). *Psychometric methods*. New York: McGraw-Hill. 조현철(1999)에서 재인용.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einberg, L. J.(1996). Theories of body image: per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J. K. Thompson(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An integrative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27-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ggins, E. T.(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Joreskog, K. G. & Sorborn, D.(1993). LISREL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won, Y. H. & Parham, E. S.(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 Kwon Y. H. & Shim, S. Y.(1999). A Structural Model for Weight Satisfaction, Self-Consciousness and Women's Use of Clothing in Mood Enhancemen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203–211.
- LaBat, K. L. & DeLong, M. R.(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Levine, M. P. & Smolak, L.(1996). The mass media and disordered eating: implications for primary prevention. In *The prevention of eating disorders*(Noordenbos, G. B. & Vandereycken, N.). (pp. 23–56) London: Athlone.
- Mazur, A.(1986). U. S. trends in feminine beauty and over adapt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2**, 281–303.
- Oliver, R.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Nov.), 460–469.
- Richins, M. L.(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1), 71–83.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im, S. Y., & Bickle, M. C.(1994). Benefit segments of the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ping orientation,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2), 1–12.
- Stormer, S. M., & Thompson, J. K.(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2), 193–202.
- Thompson, J. K.(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Thompson, J. K., & Heinberg, L. J.(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